마음이라는 건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 19면에서 계속

을 받아서 몸을 빌려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십억 마리가 다 없어지면서 하나를 뽑아 놓는 겁니다. 뽑아 놔 가지고서는 물질은 다 없어지고 심령은 그 하나 뽑아 놓은 데 다 접합니다. 인연 따라서 만난 몸이기 때문에 다 그 몸뚱이로 합쳐져서 세포 세포에 자기 소임을 맡아서 바로 한 집으로 듭니다. 그래서는 정자 난자의 그 뜻을 받아서 몸뚱이를 키우는 것이니, 아버지 어머니의 그 혜택으로 인해서 몸뚱이를 다 받게 된 것이라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애들은 "왜,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 나를 낳아 놓고 내게 해 준 게 뭐 있어?" 이렇게 한대요, 글쎄. 그런데 그렇게 몸과 마음과 피와 살을, 그리고 의식까지도 차원까지도 받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몸뚱이 속에서도 끼리끼리 인연 따라서 나한테, 즉 한 집으로 들어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를 운행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몸뚱이, 수많은 몸뚱이를 운행해 주는 것도 부모의 그 몸뚱이를 빌려서, "그 몸뚱이를 빌려서"가 아니라 그 몸뚱이가 그 몸뚱이입니다. 그러니까 2세의 아버지고 2세의 어머니죠. 그러니 그게 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단풍이 들어 낙엽이 졌다고 그래서 '아!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자기를 낳아 놓고 자기가 옷을 벗고선 그 밑으로 또 나오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불 속에 들어가도 뜨거울 것도 없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져 죽을 것도 없고 찬 것도 없고 뜨거운 것도 없어요. 이 마음이라는 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 도리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가정이나 몸뚱이나 참 편안할 겁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마힐 거사가 병을 앓고 있으니까 모두 병문안을 갔거든요. 병문안을 가서 "편찮으셔서 어떡하느냐, 어서 나으셔야지."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노라." 이러더랍니다. 우리가 당장에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각자 자기 몸뚱이 하나를 보세요. 유마힐 거사가 말한 게 재깍 나오죠. 아니 글쎄, 이 배 속의 내 중생들, 그것들이 회전을 깨끗하게 다 잘해 주고 건강해야 내 몸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가 낫죠.

그러니 참말로 불법이라는 이 자체가, 가면 갈수록 이 세상 이치가 어쩌면 그렇게 묘하고 광대하고, 알면 알수록 그렇게 떳떳하고 바다로 물 흘러 내려가듯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몸을 가지고 나와서 만약에 이 도리를 모르고 간다면 또다시 윤회에 끄달리면서 사생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짐승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벌레가 됐다가 이렇게, 좌천했다가 승진했다가 이렇게 하고 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천당도 이 자리에 있고 지옥도 이 자리에 있죠. 바로 우리 마음이 옹졸하고 불이치밀면 그것은 화탕지옥이요, 그것을 다 놓고서 평안하게 '내가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불이 나게 하면 되나? 모든 게 내 탓이니까 바로 주인공 당신밖에는 해결을 못 합니다.' 하고선 탁 놓았을 때, 방하착했을 때 바로 보살의 마음이요, 바로 자비스러운 부처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 집에 들어가면 참 아주 복잡하지 않고 좋아.' 하고 돈도 올 거고 가난도 없어질 겁니다. 화목해야 가난이 없어지는 거지 화목하지 않고 만날 싸움이나 하고 그러는데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것들도 다 생명이 있는데 말입니다. 눈이 있어요. 돈도 눈이 있고 생명이 있고, 좋은 데 알고 나쁜 데 알아요. 돈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감사한 줄 알아야 해요. 이 세상에 지수화풍이 없으면 여러분은 한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뚱이도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주 개공을 맛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물과 불과 흙과 바람이 아니라면 없었을 테니까요. 이 찻잔도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고교하게. 찻잔이라고 이름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출현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앞으로 점점 가면 점점 더할 거예요.

기독교에 십자가 붙인 거 많이 보셨죠? 우리라고 그렇게 못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법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저 이 도리를 열심히 배워서 법사의 자격을 따 가지고 법전만 들면 어디 가서 법륜 마크를 걸고라도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법입니다.

여기 부산의 여러분도 그렇게 해 보십시오. 지금 서울에 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엊그저께 개원식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을 키워서 법사 자격증을 줘서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이렇게 신비하고 좋은 우리 불법을 포교를 한다면 그것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을 설립한 겁니다. 요번에 법전이 나오면 여기 부산에도 교육원 설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될 수 있으면 젊은이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대구니 어디니 방방곡곡에 법륜 마크를 걸어 놓고 이 마음법을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모든 샘터에 샘물이 나오게 해서 그대로 자기가 퍼 먹을 수 있게끔 이끌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보살행이며 그것이 법신이며 화신입니다. 그런 문제는 말로만 하거나 이론으로만 한다면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실천으로 옮기고 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 이익이 없어요. 나는 실험을 해 보고, 내 몸뚱이를 수천 번 던져 보고 수천 번 칼로 찔러 보고,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실험을 해 보지 않고 책으로만 봐서 남의 말을 듣고 한다면 천만의 말씀이야! 지금 내 이 모습을 가지고 아주 거짓 없는 진실한 말만 하고 살아도 얼마만 있어서 이게 단풍 들어 떨어질 텐데 이 몸뚱이 가지고 얼마나 살겠다고 거짓을 해요?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부처님 법에 누가 되는, 한데 떨어지는 말이요, 한마디 거짓을 안 한다면 우주간 법계에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벌써 내가 한 마디 거짓을 하면 그것을 감추려고 백 마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하면 이 배 속에 수십억 마리가 다 알게 되지요. 음파를 통해서 벌써 법계에서 허공에서 다 알게 되지요. 그러니 내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 거짓말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거짓 없이, 우리 생활 속에서 참다운 인간의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사세요. 하늘이 무너진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는 그 삶의 참보람을 느껴 보세요.

지난번에 미국 산호세에 가니까요, 거기가 이천 평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거기 밭에 있는 풀을 전부 긁어냈어요. 거기에다가 또 거름을 끼얹고 그냥 기계로 갈아 버렸어요. 갈고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감나무 한 백 주를 심었어요. 그래 가지고 발에 흙 안 묻히고 스위치만 틀면 감나무 하나하나에 물을 주게끔 파이프를 전부 놨어요. 이렇게 해 놓고 또, 울타리나무 있죠? 여기선 그런 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이파리 하나 처지지 않는 덩어리 나무 있죠? 그것이 울타리나무라나요? 그거를 한 백 주 넘게 사서 뺑 둘러 가면서 전부 심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실과 나무도 조금 심고요.

그럭하고 있다가 뉴욕에서 말입니다, 길에 나가면 병을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백납이니 백혈병이니 에이즈병이라나 뭐 그거, 또 요새 유행되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뚱뚱해서 걸음을 못 걷는 병도 있어요. 허, 참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섯 여섯을 하나로 뭉쳐 놔도 아마 그렇게 뚱뚱하진 않을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휠체어! 내가 가만히 볼 땐 먹는 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봐요.

어느 식당에 한번 들어가니까요 글쎄,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뭐를 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면, 큰 접시에다 고기를 한 접시 야채 한 접시 또 아이스크림이 한 접시 또 닭 한 접시, 네 접시를, 허허, 혼자서 가져가길래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죠. '아, 여러 사람이 오니까 뷔페식으로 저렇게 갖다 놓고 덜어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거기 구경하자고 들어가서 아이스크림하고 야채하고 먹는데요, 고 조그만 것도 배가 부른데 아이, 나중에 보니까 그걸 다 먹었어요, 글쎄. 하하하, 너무나 깜짝 놀란 거 있죠? 그러니 몸뚱이가 그렇게 안 되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요새 일본 사람들이 아주 한 등 올라선 게 뭐냐 하면 일본식으로 스시나 야채를 튀겨 놓는 거, 이런 걸로 아주 붐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또 애인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거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아마 몸이 뚱뚱해지니까 요런 걸 먹어야 되겠다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러한 병도 그렇지만 모두 우리 자체가 바로 내 몸을 내가 알아서 코치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조금 나쁜 수를 놓는 게 좋다. 또 그럴 땐 정신에도 좋고 몸뚱이에 병이 안 생기죠. 여러분도 먹는 데에 좀 더 유념하시고, 또 좋은 거 나쁜 거 가려 먹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스스로 속에서 달라는 대로만 조금씩 주면 돼요. 이 중생들이 달라는 대로만 주시면 되거든요. 내가 일부러 좋다고 하고 먹을 필요가 없어요. 달라는 대로만 주세요. 그러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 한번 가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서 흙도 날라 보고 삽질도 해 보고 곡괭이질도 해 보고 그래 봤지만 말입니다, 호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래서 올 때는 호박이 그냥 지천으로 열렸습니다마는 미국에는 한국의 애호박이라는 게 없어요. 오이도 그런 오이가 없고요. 고추도 그런 고추가 없고요. 배나무도 그런 배나무가 없고, 그래서 배나무도 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갈 인연이 있어서 감 날 때에 간다면 감은 실컷 먹을 겁니다. 허허허….

> 모든 샘터에 샘물이 나오게 해서
> 그대로 자기가 퍼 먹을 수 있게끔 이끌어 줄 수 있다면
> 그것이 보살행이며 법신이며 화신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8년 7월 3일 국내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건강식품 대특가! 단 100세트 한정 특별할인판매

기간 : 오늘부터 ~ 2025년 7월 30일까지

세계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모방불가능! 세계 최초 기술력!
관절·연골·칼슘을 한 번에 챙기세요!

① 에이펙셀 관절연골튼튼
✔ 세계최초 기술력! 관절+연골 집중 케어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증정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하루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관절 지키기!



② 한국칼슘왕 (나노칼슘)
✔ 세계최초 나노입자 칼슘으로 흡수력 UP!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2개월분)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나이 들수록 중요한 칼슘! 뼈부터 챙기세요!



③ 본추관절정 2+2 행사
✔ 관절과 연골에 딱 맞는 4개월 구성!
1세트(2통)+사은품 2통 → 총 4통 (4개월분)
정가 396,000원 → 특판가 15만원
→ 무릎, 어깨, 허리까지! 50% 할인 찬스!



지금 전화주세요! 선착순 100분 한정판매!
수량소진 시 예고 없이 종료됩니다!
택배무료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는 인터넷 마하몰 www.mahamall.co.kr에서 주문시 가능)
상담 : 1688-9099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